

양돈농가 고가(高價) 사료 시대를 슬기롭게 해결하자



최영열 회장
(사)대한양돈협회

이제 2006년도 끝이 보이고 있다. 2006년은 고돈가가 유지되면서 일부 농가들은 그동안의 노력을 좋은 결실로 거둬들일 수 있는 해였으나 반면, 질병 등으로 일부 농가에서는 이 시기가 더욱 어렵던 해이기도 하였다. '양극화'란 단어는 이제 우리 사회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었지만 공교롭게도 우리 양돈농가들의 오늘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되기도 했다.

다가오는 2007년을 내다보는 업계의 시선은 하나같이 어둡다. 최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사료의 주원료인 옥수수를 석유 대체 에너지인 에탄올 생산에 사용하는 등 산업용 옥수수의 수요가 급증하여 식량 및 축산용 옥수수의 가격이 치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우리 양돈업계에서는 사료 값이 상승해 농장 생산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우리 양돈농가들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생각을 해보았다.

첫째, 우리 양돈농가들은 사양관리에 있어서 보다 철저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한 정상적인 돼지 출하를 해야 할 것이다. 농장을 하나의 기업이라 생각하면 돼지의 출하는 상품의 생산이 된다. 외부 상황을 떠나 기업에서 상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그 기업은 도태되게 된다. 우리 양돈농가들은 이 점을 항상 명심하고 농장에 문제가 없는지 항상 점검하고 이를 개선해 농장 생산을 정상화 시켜야 하겠다.

양돈농가 고가(高價) 사료 시대를 슬기롭게 해결하자

둘째, 돈군의 영양학적 균형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 농장에서 생산비 절감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낮은 가격의 사료를 사용한다면 돈군의 영양 상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로 인해 돼지의 면역력 저하, 출하일령 지연, 질병의 발병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우리 양돈농가에서는 가격만 생각해 사료를 선택해서는 안 되겠다.

셋째, 철저한 경영관리를 통해 농장에서 불필요한 자금의 지출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농장에서 알게 모르게 나가는 약품비용이나 불필요한 첨가제 비용 등이 있을 것이다. 농장 컨설팅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농장 상황에 맞는, 돈군의 성장 단계 및 영양학적 균형에 맞춘 사양관리 방법과 백신 관리체계를 통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농장 경영비용을 줄여야 할 것이다.

넷째, 양돈농가들의 위기는 양돈농가만의 위기가 아니라 사료업계, 양돈 기자재업계, 약품업계 등 양돈농가를 둘러싼 모든 산업의 위기다. 양돈농가, 사료, 기자재, 약품업계 관계자들은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힘쓸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한쪽 업계 경영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업계에서는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겠다.

다섯째, 양돈농가들은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하겠다. 사업에는 항상 굴곡이 있다. 호황기가 있으면 불황기도 있다. '굴이 깊으면 산도 높다' 는 말이 있듯이 당장 어렵다고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주위의 양돈농가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조직적 활동을 통해서 슬기롭게 이 시기를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1998년 IMF로 많은 양돈농가들이 양돈업을 포기했으며, 2002년에는 돼지열병과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양돈농가들은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양돈농가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왔다.

이제 질병과 함께 사료 곡물가격에 인상에 따라 농장 생산비가 증가하는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라 한다. 우리 양돈농가들은 그동안 보여줬던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진인사 대천명(盡人事待天命)’ 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 양돈농가들은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해본다. **양돈**